■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81-404.
http://doi.org/10.17948/kcs.2023..98.381

생물 해석관점에 나타난 주역인문학*
—현륙(莧陸)과 석서(鼫鼠)의 동식물 해석 사례 중심—

황병기(黃昞起)**

목 차

1. 머리말
2. 역사(易詞)의 물상과 그 구분
3. 생물 해석관점과 상징 해석의 차별성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주역』 상징어의 의미변천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 프로젝트의 연속 기획의 하나로서, 『주역』 경문의 생물 관련 물상(物象)에 대한 주석의 변천 사례를 통해 상징성의 문화적 상대성을 분석하여 주역학을 폭넓은 의미의 인문학으로 재해석하고자 한 논문이다.

기본적으로 홑괘(單卦)는 8개의 범주에 따라 분류된 각각의 대상을 단독적으로 지시하지만, 겹괘(重卦)의 단계가 되면 64개의 상황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상하의 관계, 호응의 관계, 각 지위에 따른 변화의 관계 등 복잡한 관계망의 형성과 함께 홑괘의 지시대상들이 복잡하게 얽혀 새로운 상이 창출된다. 겹괘에 등장하는 복합 상은 팔괘 각각의 상을 온전히 보전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상으로 전화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주석자의 해석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역사(易詞)의 상징성을 동물과 식물 각각의 사례를 가지고 통시적으로 그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역사(易詞)의 상징성을 보편과 특수라는 해석 관점에 따라 조망하면서, 상징성의 시공간적 함의와 역사(易詞) 해석을 둘러싼 상징성의 차별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5523)
** 서경대 동양학과 특임교수.

해석 관점의 차이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현격해지며, 주석자의 신분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해석자의 관점에는 그가 속해 있는 특수한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역사(易詞)의 의미 변천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역학은 한대에서 위진시대로 넘어가며 전변하고, 수당시대, 송명시대, 원대와 청대에 각각 다른 양상을 띤다. 특히 원대와 청대에는 역상의 상징성이 다른 시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홑괘(팔괘)의 상징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중첩되어 만들어지는 겹괘(64괘)의 상징들도 해석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사조별 의미의 변천이 있다. 384개 역사 전체에 등장하는 물상들은 각 주석자만의 독특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전쟁의 상이 될 수도 있고, 평화의 상이 될 수도 있다. 대인의 장쾌한 상이 될 수도 있고, 소인이 갈구하는 희망의 상이 될 수도 있다. 역사(易詞)를 독해할 때 사전의 고정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날다람쥐의 생태적 특징을 잔뜩 설명해 놓고 번역어는 생쥐라고 하는 경우처럼 전혀 엉뚱한 언어가 되는 것이다.

동일한 역사(易詞)의 한 물상을 동물로도 식물로도 또는 전쟁과 평화로도 해석하는 각각의 해석 관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역학이 오랜 기간 동아시아에서 누려왔던 다양한 인문학적 콘텐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주역인문학, 상징성, 역학(易學), 해석 관점, 홑괘(單卦), 겹괘(重卦), 정약용(丁若鏞), 시대정신, 현륙(莧陸), 석서(鼫鼠).

1. 머리말

이 글은 “『주역』 상징어의 의미변천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정약용 역상학의 사상적 연원 탐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연속 기획의 하나로서, 『주역』 경문의 생물 관련 물상(物象)에 대한 주석의 변천 사례를 통해 상징성의 문화적 상대성을 분석하여 역학을 폭넓은 의미의 인문학으로 재해석하고자 한 논문이다.

팔괘의 물상을 설명하고 있는 「설괘전」에 따르면, 물상은 용, 말, 소, 돼지 등과 같은 동물의 상도 있고, 머리, 눈, 코, 입, 발 등과 같은 신체의 상도 있으며, 강건, 순종, 운동, 정지 등과 같은 속성(品德)의 상도 있고, 아비, 어미, 장남, 장녀 등의 가족관계(人倫)의 상도 있다. 또한 군자, 소인, 주인, 손님과 같은 인품에 대한 상도 있고, 검정, 하양, 파랑, 빨강, 노랑 등의 색에

대한 상도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상도 있다. 이 외에도 오행과 관련된 물, 불, 나무, 쇠, 흙의 상도 있고, 인, 의, 예, 지와 같은 덕의 상도 있다. 「설괘전」은 이른바 십익이라는 역전의 하나로서 팔괘의 상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서, 8개의 범주 안에서 상들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이 팔괘를 중첩하여 6획의 64괘를 구성하였으니, 64괘의 겹괘(重卦)[1]에는 홑괘(單卦)의 상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킬 수밖에 없다. 건(乾)괘의 잠룡(潛龍), 현룡(見龍), 비룡(飛龍), 항룡(亢龍)이 홑괘 두 개의 상이 결합된 복합적 상이 되고, 곤(坤)괘의 빈마(牝馬), 견빙(堅氷), 왕사(王事), 괄낭(括囊), 황상(黃裳) 등도 마찬가지로 복합 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복희(伏羲)라는 고대 동아시아의 전설적 인물이 괘라는 부호를 처음 창안했을 때부터 먼저 8개의 홑괘(單卦)로 세상의 만사만물을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8개의 홑괘를 겹으로 쌓아 겹괘(重卦)를 만들었을 때 위와 아래의 홑괘와 중간의 호괘(互卦) 그리고 6개의 지위(位)에 따라 형성되는 관계성에 따라 새로운 물상들이 역사(易詞)[2]에 등장했다.

기본적으로 홑괘의 단계에는 8개의 범주에 따라 분류된 각각의 대상을 단독적으로 지시하지만, 겹괘의 단계가 되면 64개의 상황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상하의 관계, 호응의 관계, 각 지위에 따른 변화의 관계 등 복잡한 관계망의 형성과 함께 홑괘의 지시대상들이 복잡하게 얽혀 새로운 상이 창출된다. 겹괘에 등장하는 복합 상은 팔괘 각각의 상을 온전히 보전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상으로 전화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주석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8개 범주의 관계망 속에서 겹괘 건(乾)괘에는 건국(建國)의 상이 만들어지고, 준(屯)괘에는 개척과 사냥의 상이 구성되고, 몽(蒙)괘에는 교육의 상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64개의 겹괘는 전쟁의 상, 교화의 상, 구제의 상, 소송의 상, 애정의 상, 제사의 상, 건국, 사냥, 예절, 군림, 관조, 태평, 비색, 소유,

---

1) '홑괘'는 소성괘를 지칭하는 단괘(單卦)에 대한 번역어이며, 팔괘 각각을 가리킨다. '겹괘'는 소성괘인 홑괘가 상하로 겹쳐진 중괘(重卦)를 가리키며, 대성괘 64괘를 지칭한다. 필자가 역학 용어에 대해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 한글화하는 의도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2) 역사(易詞): 정약용이 『주역사전』과 『역학서언』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주역』의 경문, 곧 괘사(卦辭)와 효사(爻辭)를 아우르는 말이다.

축적 등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상들이 새롭게 드러난다. 따라서 팔괘의 상들은 이 64개의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상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易詞)에서 사용된 물상(物象)은 그 지시대상이 팔괘의 상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64괘의 상황(時)에 맞게 변형된 상이 있기도 하고, 시대별로 공간별로 차별화된 전혀 새로운 상이 있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물상의 역사(易詞) 속에서의 의미를 동물과 식물 각각의 사례를 가지고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 역사(易詞)의 물상과 그 구분

역사(易詞)의 물상들은 크게 홑괘의 물상과 겹괘의 물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우주의 만사만물을 8개의 범주(類)로 분류한 것이 홑괘 팔괘의 물상이고, 그 두 개의 범주가 중첩되어 구성되는 것이 겹괘 64괘의 물상이다.

홑괘(單卦)는 8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설괘전」에는 홑괘의 물상(物象)들이 적시되어 있다. 각 범주마다 많은 물상들이 열거되어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3)]

〈표 1〉 說卦物象表

		卦德	人倫	人品	遠取	近取	物色	器物	雜物
一乾天	☰	建	父	賓	馬	首	大赤	金玉	氷
二坤地	☷	順	母	衆人	牛	腹	黑	釜	布
三震雷	☳	動	長男	君子	龍	足	蒼	簋	稼
四巽風	☴	入	長女	主人	鷄	股	白	繩	臭
五坎水	☵	陷	中男	盜	豕	耳	赤	弓	血
六离火	☲	麗	中女	武人	雉	目	·	甲冑	墉
七艮山	☶	止	少男	小人	狗	手	·	節	門闕
八兌澤	☱	說	少女	巫	羊	口	·	瓶	剛鹵

3) 아래 표에서 팔괘의 순서는 문왕팔괘차서에 따른 것이며, 부모육자(父母六子)의 관점에서 서열화한 것이다.

그러나 「설괘전」은 공자의 작품이라 해도 대략 2,500년 전의 글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복희(伏羲)의 작품이라 하면 대략 5,000년 전의 글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물을 반영하지 못한다. 중국 한나라 때의 상수학자들이 역사(易詞)의 해석 과정에서 「설괘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물상들을 대거 편입하기 시작했다. 이때 8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물상들이 대부분 보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강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한나라 때의 물상 보강은 8개의 범주에는 해당되지만 「설괘전」의 목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강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물상 보강은 인문학적 지식의 확장에서 주석자의 주장과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강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역대 역학자들이 이용한 물상들을 정약용이 『주역사전』「설괘전」 주석에서 언급한 것에 바탕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4] 정약용은 팔괘 각각의 범주에 총 90개가 넘는 물상을 보강했다.[5] 아래 표의 목록은 정약용의 독창이 아니고, 역대 주석가들의 물상 목록이다. 물론 역대 역학자들이 활용한 모든 물상을 집성한 목록은 아니다.

〈표 2〉

		「설괘전」 기본 물상	한대 보강 물상	역대 보강 물상
一乾天	☰	建 父 君 賓 馬 首 大赤 玉 氷	衣 直 施 德 人 盈 大車 金玉 矢 龍 言 甲	矢 階 郊 野 宗 賓 嬴 富 白 茅 忿
二坤地	☷	順 母 衆人 牛 腹 黑 釜 布	裳 帛 黃 邑 臣民 國 虛 暑 虎 拇 鬼 死 迷 亂 漿 器 乙 晦	膚 田 朋 膚 溫 甘 慾
三震雷	☳	動 長男 君子 龍 足 蒼 篕 稼	夫 兄 器 乙 仰缶 行 侯 主 樂 作 拇 茅 棟 麋鹿 鵠 玉 鼓	鬚 草木 舟車 囊 斗 旗 篕 筐 帝 行人 老人 君子 師 將帥 仁 左 立 閉 首
四巽風	☴	入 長女 主人 鷄 股 白 繩 臭	楊 杞 茅 包 號 命 魚 妻 棟 鸛 處 舞	牛 蟲 藥 載 隱伏 施 主人

4) 역사(易詞)의 물상에 대해서는 졸저 『정약용의 주역철학』 제5장 역상학과 「설괘전」 편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5) 丁若鏞, 『周易四箋』(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說卦傳」 箋 참조.

五坎水	☵	陷 中男 盜 豕 耳 赤 弓 血	狐 大車 宮 律 叢棘 蒺藜 桎 梏 酒 疑 夜 漿 臀 棟 孚 蹇	鹿 背 田 石 帶 膏 鳥翼 敬 知 幾 處 亂 衆
六离火	☲	麗 中女 武人 雉 目 甲胄 墉	飛鳥 牝牛 鸛 隼 矢 斧 網 晝 夏 鴻 鼓 孚	面 墉 獄 防閑 苦 治 禮 誡 寬 辨 喜 嘉 史 武人 孚
七艮山	☶	止 少男 小人 狗 手 節 門闕	鼻 尾 鬼 死 冥 城 宗廟 求 狐 虎 狼	邑 牀 廬次 土 迷 守 誡 退 童 小人 木根
八兌澤	☱	說 少女 巫 羊 口 瓶 剛鹵	(晦 號) 輔頰 妹 常 刑 孔穴	虎 金 食 袂 義 幽人 脫失 右 晦 厲

홑괘 ☰(乾)의 물상은 「설괘전」에 천(天), 건(建), 군(君), 부(父), 빈(賓), 수(首), 마(馬), 대적(大赤), 옥(玉), 빙(氷) 등이 기본적인 물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찌 이 몇 가지 사물이 홑괘 건(乾)의 상징으로 족하겠는가! 역사(易詞)의 해석 과정에 자신의 주장과 논리에 맞는 합리적 해석을 하기 위해 주석가들은 새로운 물상을 찾았다. 각 새로운 물상들은 전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홑괘 팔괘의 범주 내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합리성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각 주석자의 시대와 공간에 맞는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다. 한나라 때에 상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물상의 보강도 상당량 이루어졌다. 한나라 이후에 역사 해석에 활용한 물상은 대체로 「설괘전」 본래의 물상이거나 한나라 때 보강된 물상을 이용하였고, 보강된 것이 많지 않다. 한나라 때의 성과가 그만큼 상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8개 홑괘의 물상들은 홑괘 각각의 정적인 지시대상일 뿐이고, 전혀 동적인 성질을 띠지 못한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일 뿐이며, 아비는 아비일 뿐이고 어미는 어미일 뿐이다. 이 물상들이 동적인 성질을 띠기 위해서는 겹괘 안에서 관계성을 가져야만 한다. 건(乾 ☰)과 곤(坤 ☷)을 예로 들자면, 이 두 괘가 중첩된 겹괘에서 관계성이 형성된 뒤에야 동적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땅이 하늘 위에 중첩된 태(泰)괘(䷊)는 땅이 무거워 아래로 향하려는 속성과 하늘이 가벼워 위로 향하려는 속성이 만나 서로 교류하는 동적 성질을 갖게 되면서 '태(泰)'라는 괘명을 얻게 된다. 반면 하늘이 땅 위에 중첩된 비(否)괘(䷋)는 하늘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향하고, 땅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향하는 동적 지향성을 가지면서 교류하지 않는 동적 관계성을 띠기 때문에 '비(否)'라는 괘명을 얻는 것이다.

겹괘를 형성하여 6획괘가 되면 여섯 개의 높낮이자리(位)에 따라 하나의 사물도 잠재적 형태를 띠게 된다. 예를 들어 건(乾)괘(䷀)의 용(龍)은 자리(位)에 따라 잠룡(潛龍), 현룡(見龍), 비룡(飛龍), 항룡(亢龍)으로 변모한다. 원래 용(龍)은 「설괘전」에서 '진(震)'의 물상 중 하나이고, 이 '진룡(震龍)'을 수식하는 '잠(潛)'은 홑괘 손(巽)의 속성이며, '현(見)'과 '비(飛)'는 홑괘 리(离)의 속성이고, '항(亢)'은 홑괘 태(兌)의 속성이다. 홑괘의 정적인 물상들이 겹괘에서 동적인 결합을 함으로써 용은 숨거나 나타나거나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겹괘에는 자리(位)에 따른 응(應)과 비(比) 관계가 형성되며 이른바 '천지만물지정(天地萬物之情)'[6]이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는 전쟁의 상도 있고, 종법과 같은 제도의 상도 있고, 무역의 상도 있으며, 음양합일의 상, 사냥의 상, 의식주, 농사, 계몽, 군사, 부부, 청춘남녀, 군신, 완성과 미완, 태평과 비색 등 온갖 세상만사의 상이 있다. 홑괘 8개가 세상의 모든 상을 정적으로 범주화한 것이라면, 겹괘 64개는 세상의 모든 실상 혹은 정황을 동적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곧 64개의 겹괘는 모든 관계성을 내함하는 것이며, 64개의 관계성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천지만물지정이란 곧 세상만사인 것이다.

그런데 세상만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모하기 때문에 역사(易詞) 속의 같은 상이라도 해당 시공간에 따라 해석의 관점이 들어가게 된다. 관점의 차이는 중국의 전적들을 모아 편집한 『사고전서』를 빌려 말해보자면, '양파육종(兩派六宗)'으로 갈릴 것이다.[7] 양파(兩派) 곧 상수파(象數派)와 의리파(義理派)의 관점이 다르며, 더 세분하여 본다면, 상수파에 속하는 상수종(象數宗), 기상종(禨祥宗), 조화종(造化宗)의 세 종(宗)이 다르고, 의리파에 속하는 유리종(儒理宗), 노장종(老莊宗), 사사종(史事宗)의 세 종이 또 다르다.

이러한 해석관점의 차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동물과 식물의 상을 사례로

---

6) 『주역』 咸卦, 「단전」. "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 而天下和平. 觀其所感, 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 (하늘과 땅이 감응하니 만물이 변화 생육하고, 성인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천하가 화평하다. 그 감응하는 바를 보면 천지 만물의 실정을 볼 수 있다.)"

7) 『四庫全書』, 「總目提要」(흠정사고전서본) 참조.

그 관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해석관점의 차이는 파(派)와 종(宗)의 차이일 수도 있고, 각 파(派)와 각 종(宗)의 내부적 차이일 수도 있다. 아래에서 사례를 들어 그 상대적 차이를 검토한다.

3. 생물 해석관점과 상징 해석의 차별성

1) '현륙(莧陸)'[8]의 상징성과 해석 사례

역사(易詞)에 대한 주석들은 주석자가 처한 역사와 문화의 차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역학의 부호(곧 홑괘와 겹괘)와 그 상징성은 불변하지만, 역학 내적인 관계성의 측면에서는 각각의 해석 관점이 있고, 그 상징체계로 보면 각 획의 관계성이 사유의 관점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제43번 괘인 쾌(夬)괘 구5의 효사 '현륙쾌쾌(莧陸夬夬)'를 분석해 보자. '현륙(莧陸)'이라는 물상은 주석자에 따라 동물이 되기도 하고, 식물이 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닌 추상명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번(虞翻, 146-233)은 '현륙(莧陸)'이라는 문자 자체를 '완목(莞睦)'으로 개정하였고, 조화와 기쁨의 뜻이라 해석했다. 우번에게 이 '현륙(莧陸)'이라는 물상에는 생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 현(莧)은 기쁘다는 말이며, (『논어』에서) 공자가 기쁜 표정으로 웃었다고 했을 때의 완(莞)[9]과 같다. 륙(陸)은 화목하다는 말이다. 진(震)은 웃으며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5효가 바른 자리를 얻고, 태(兌)는 기뻐함이므로, 기쁨과 화목이 자란다.[10]

우번은 쾌(夬)괘 구5의 자리를 기쁨과 화목함이 넘치는 자리로 본 것이다. 『석문(釋文)』과 촉재(蜀才, ?-318)는 우번의 주장처럼 '륙(陸)'을 화목할 '목(睦)'자로 썼다.[11] 우번

---

8) 이 '현륙(莧陸)'에 대해서는 졸고, 「『주역』의 상징성과 그 역사적 기원」(『온지논총』 52, 온지학회, 2017)에서 일부 다룬 바 있다.

9) 莞: '莧爾而笑'는 원래 『논어』 「陽貨」편의 '莞爾而笑'를 인용한 것이다. 『釋文』에서도 '莞'을 '莧'자로 썼으니 통용자이다. 여기서는 『논어』 본문의 것으로 대체한다.

10) 李道平, 『周易集解纂疏』(中華書局, 1994) 夬卦 九五. 虞翻曰: "莧, 說也. 莧讀夫子莧爾而笑之莧. 陸, 和睦也. 震爲笑言, 五得正位, 兌爲說, 故莧陸夬夬."

과 촉재는 곧 '현륙쾌쾌(莧陸夬夬)'를 기쁨과 화목함이 넘쳐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같은 후한 시기 우번보다 약 18년 앞서 산 순상(荀爽, 128-190)은 '현륙(莧陸)'을 각각 다른 두 종의 풀로 보았다. 순상은 식물로 파악한 것이다. 동시대인이 같은 문자와 같은 물상을 두고 어떻게 이리도 다른 해석을 한 것일까.

> 현(莧)은 잎이 부드럽고, 뿌리는 단단하고 붉기 때문에, 음(陰)이 상6[12]에 있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륙(陸)도 잎이 부드럽고, 뿌리가 단단한 데서 이름을 취하였다. 다만 음(陰)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륙(陸)이라 한 것이고, 현(莧)보다 덜 단단하다. 현(莧)은 뿌리가 작고, 륙(陸)은 뿌리가 크다.[13]

순상보다 약간 늦은 시기의 인물인 동우(董遇)도 두 종의 풀로 보았다. 그는 "현(莧)은 인현(人莧, 비름)[14]이고, 륙(陸)은 상륙(商陸)을 가리킨다"[15]라고 하여 현莧과 륙陸을 별개의 식물로 간주했다. 반면 마융(馬融, 79-166)과 정현(鄭玄, 127-200), 왕숙(王肅, 195-256)은 한 종의 식물로 파악했고, '상륙(商陸, 자리공)'이라고 풀이했다.[16]

이렇게 현륙(莧陸)을 연약한 풀로 본 사람은 한대 상수역학자들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의리역학자들이 모두 현륙(莧陸)을 풀로 해석하였다. 왕필(王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11) 李道平, 『周易集解纂疏』(中華書局, 1994) 夬卦 九五. 纂疏: "陸, 釋文蜀才作睦, 陸與睦古通用."

12) 필자는 효의 명칭을 양효를 예를 들어, 초9, 구2, 구3, 구4, 구5, 상9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필요로 하겠지만, 이곳에서는 다만 하나의 시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초, 2, 3, 4, 5, 상은 자리의 지시어이고, 9는 양효에 대한 지시어이다. 예를 들어, '2'를 '이'로 부르든, 'Second line'으로 표기하든, 또는 '두 번째 자리'라고 표기하든 모두 해당 자리의 효임을 가리키는 지시어일 뿐이다. 따라서 '구이'나 '92', '9-2', '9이', 'Nine Two', 'Second Yang' 등의 명칭이 틀린 말이 아니다. 단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구이(九二)'라는 표기일 뿐이다.

13) 李道平, 『周易集解纂疏』(中華書局, 1994) 夬卦 九五. 荀爽曰: "莧者, 葉柔而根堅且赤, 以言陰在上六也. 陸亦取葉柔而根堅也. 去陰遠, 故言陸, 言差堅于莧. 莧根小, 陸根大."

14) 인현(人莧):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는 『촉본초(蜀本草)』를 인용하여 '비름(莧)은 모두 여섯 종류로서 적현(赤莧), 백현(白莧), 인현(人莧), 오색현(五色莧), 자현(紫莧), 마현(馬莧)이다. 오직 인현과 백현은 실로 약에 넣을 만하다'고 하였다. 곧 인현(人莧)은 약용 비름의 한 종이다.

15) 李道平, 『周易集解纂疏』(中華書局, 1994) 夬卦 九五. 纂疏: "董遇云, '莧, 人莧也. 陸, 商陸也', 莧·陸, 二草名."

16) 李道平, 『周易集解纂疏』(中華書局, 1994) 夬卦 九五. 纂疏: "馬融鄭玄王肅皆云莧陸, 一名商陸. 是以莧陸爲一物. 若荀宋虞董皆以莧陸爲二. 今王注直云草之柔脆, 亦以爲一物, 同于子夏等也."

> 현륙(莧陸)은 풀 중에 부드럽고 약한 풀이다. 절단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쾌쾌(夬夬)'라 한다. 쾌(夬)의 뜻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몰아내고, 군자가 소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17]

왕필은 현륙(莧陸)을 한 종의 식물로 본 것이다. 한 종의 식물로 보는 학자는 왕필의 계승자인 정이(程頤)도 마찬가지였다. 송대의 정이(程頤, 1033-1107)는 약해서 쉽게 꺾어지는 '쇠비름(풀)'으로 이해했다.

> 현륙(莧陸)은 지금의 마치현(馬齒莧)이다. 햇볕에 쬐어도 잘 마르지 않고 음기에 접촉하는 것이 많은 식물이며 연약하여 꺾어지기 쉽다.[18]

마치현(馬齒莧)은 명대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 따르면, 잎의 모양이 말 이빨과 비슷하고, 약재의 성질이 매끄러운 것이 비름(莧)과 유사하여 '마치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며, 잘 시들지 않기 때문에 '장명(長命)'이라 불리기도 한다고 한다. 송대 소송(蘇頌, 1020-1101)의 『본초도경(本草圖經)』에 따르면, 마치현은 비록 현(莧)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싹과 잎의 모양이 모두 비름(莧)과 다르고, 오행초(五行草)로도 불리는데 잎은 청색, 줄기는 적색, 꽃은 황색, 뿌리는 백색, 씨앗은 흑색이기 때문이라 한다.

주희(朱熹, 1130-1200)도 정이의 주장을 수용하여 마치현(馬齒莧)이라는 한 종의 풀로 보았다.[19] 반면 주희보다 조금 이른 시기의 주진(朱震, ?-1138)은 두 종의 식물로 이해했다. 그는 "현(莧)은 붉은 비름으로 연못식물이며, 상륙(商陸)[20]도 연못식물이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현륙을 매우 약한 풀의 종류로 이해한 것이다.

반면에 『설문』은 '현(莧)'을 산양(山羊)이라 하여 동물로 파악하였다. 원대의 오징(吳澄, 1249-1333)은 『설문』을 좇아 산양이라 하였다. 오징은 항안세(項安世, 1129-1208)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7) 王弼, 『周易註』(樓宇烈, 『王弼注校釋』), 夬卦 구5, 436쪽. "莧陸, 草之柔脆者也, 決之至易, 故曰'夬夬'也. 夬之爲義, 以剛決柔, 以君子除小人者也."
18) 程頤, 『伊川易傳』(欽定四庫全書本), 夬卦 구5. "莧陸, 今所謂馬齒莧, 是也. 曝之難乾, 感陰氣之多者也, 而脆易折."
19) 朱熹, 『周易本義』(欽定四庫全書本), 夬卦 구5. "莧陸, 今馬齒莧"
20) 상륙(商陸): 자리공불휘(『東醫寶鑑』, 『本草』). 곧 자리공뿌리로 장류근(章柳根) 또는 장륙(章陸)이라 한다.

> 항안세는 '호(莧)자의 소리는 환(丸)과 토(土)의 반절음인 호이며, 양(羊)을 가리킨다. 륙(陸)은 양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길이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현(莧)자는 위는 초(艹)로 양의 뿔 상이고, 가운데는 목(目)으로 양의 눈 상이고, 아래는 인(儿)으로 양의 발 상이다. 양의 무리가 산을 갈 때 그것들을 견인하여 길에 놓아 기른다.[21]

오징은 현(莧)을 초(艹)자와 견(見)자의 형성자로 보아 풀의 한 종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를 배척하고, 양의 뿔(艹)과 눈(目)과 발(儿)을 형상한 상형자로 이해한 것이다.

쾌(夬)괘(䷪)는 양(陽)이 왕성하게 밀어 올라가 마지막 음(陰) 한 획만을 남겨놓은 상황, 곧 건(乾)괘가 막 되려는 순간의 기운이 넘쳐나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때 구5는 중정하고 거칠 것이 없다.

동일한 역사(易詞)가 이렇게 다양하게, 게다가 동물로 보기도 하고 식물로 보기도 하는 극단의 해석 관점으로 표출되는 것은 경학적 차원에서 하나의 진리에 귀속되는 논의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역 해석에 있어 다양한 문화적 요소,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드러낸다면 해석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다원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역학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일종의 상상력이 될 것이다. 『주역』의 해석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하여 이상의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번과 촉재는 쾌(夬)괘의 구5라는 절정의 단계에서 조화와 화목의 덕목으로 상6의 음(陰)을 대하는 것을 쾌(夬)괘의 덕으로 본 것이다. 우번은 후한 말의 동오(東吳) 사람이고, 촉재는 삼국시기 촉(蜀)나라 사람이니, 모두 주변적 인물들로서, 전쟁의 와중에 평화와 안정을 갈구했을 것이다. 추측건대, 이들은 쾌(夬)괘 본연의 장쾌한 상징성, 특히 구5까지 치밀어 올라온 양(陽)의 기운과 패기를 평화와 안정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어 했을 것이다.

반면 순상과 동우, 왕필, 정이(程頤), 주희 등은 약하여 쉽게 꺾이는 풀로

---

21) 吳澄, 『易纂言』(欽定四庫全書本), 夬卦 구5. "項氏曰, '莧音丸土, 羊也. 陸, 其羣行之路'. 澄案: 莧字, 上從艹, 羊之角也. 中從目, 羊之目也. 下從儿, 羊之足也. 羊羣行山, 牽而引牧於陸."

보아 대인의 장쾌한 양의 기운이 약한 풀을 꺾듯이 이제 막 소인을 몰아내려는 상황에서 현륙을 해석하였다. 순상은 본래 후한 말에 사도(司徒) 벼슬을 지내는데, 동탁(董卓)의 장안(長安) 천도(遷都)를 반대하다가 서민으로 강등되었지만, 훗날 위(魏)나라의 문사(文士)가 되었던 지도자급 인사이다. 동우(董遇)도 같은 시기에 위나라의 시중(侍中), 대사농(大司農) 등을 역임했다. 그들은 중국 삼국시기의 중심국가인 위(魏)나라에 살면서 대국이 소국을 장쾌하게 물리치듯이, 대인이 소인을 가볍게 쓸어내듯이 쾌(夬)괘의 장쾌한 상징성을 활용하여 빠른 천하통일을 기약하지 않았을까!

왕필의 경우는 이들 상수학자의 관점과는 달리, 그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지만, 단순한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리(理)라는 지고무상의 통일적 원리로서 약하고 무른 풀을 바람이 쓸어버리듯이, 리(理)로의 관념적 회귀를 열망한 것이 아닐까! 왕필역을 계승한 정이와 주희는 금나라와의 전쟁으로 약해져가는 국력 앞에 화이(華夷)적 의식으로 문명인이 야만인을 척결하듯이 금나라를 물리치고 중국천하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현륙(莧陸)의 상징성에 담아낸 것이 아닐까. 주석자의 역사환경이 유사할수록 해석 관점의 유사성도 동시에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석서(鼫鼠)'의 상징성과 해석 사례

제35번 괘인 진(晉)괘 구4에 '석서(鼫鼠)'라는 물상이 등장한다. 구4 효사는 이러하다.

晉如鼫鼠, 貞厲. 나아가는 것이 마치 석서 같으니, 일이 위태롭다.

석서(鼫鼠)는 후한 초기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다섯 가지 재주를 가진 쥐(鼠)이다. 날 수 있지만 지붕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나무를 탈 수 있지만 나무 끝까지 오르지는 못하고, 헤엄칠 수 있지만 골짜기를 건너가지는 못하고, 구멍을 파서 살 수 있지만 몸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하고, 뛸 수 있지만 사람을 앞지르지는 못한다"[22]고 한 것을 보면, 다람쥣과의 '날다람쥐' 정도로 이해된다.

현대 중국어사전에서 석서(鼫鼠)는 '오서(鼯鼠)'(날다람쥐)의 구칭 또는 옛날 '누고(蝼蛄, lóugū)'(땅강아지)의 별칭으로 풀이되고 있다. 허신의 『설문해자』의 설명은 '땅강아지'와는 거리가 멀고, '날다람쥐'라야만 이해될 수 있는 풀이이다. 땅강아지는 땅을 파고 살며, 날개가 있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날다람쥐는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니라서 뛰어내리는 높이 이상으로 날아오를 수 없지만, 땅강아지는 웬만한 집 지붕은 넘어 날아다닐 수 있다. 땅강아지는 또 매우 빨리 달릴 수도 있다. 곧 『설문해자』의 '오기서(五技鼠)'는 결코 땅강아지를 묘사한 문장이 될 수 없다.

당대에 공영달은 『주역정의(周易正義)』에서 석서를 곤충이라고 소(疏)를 달았다.

> 석서(鼫鼠)는 다섯 가지 재능이 있으나 그 재주를 달성하지 못하는 곤충(蟲)이다.[23]

공영달은 '날다람쥐'가 아니라 '땅강아지' 종류로 이해한 것이다. 공영달의 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왕필주를 살펴야 한다. 왕필의 『주역주』를 살펴보자.

> 밟고 있는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며, 위로 제5효를 받들고, 아래로 세 음(陰)을 의지하니, 밟은 자리도 제 자리가 아닌데다가 머리로는 이고 아래로는 타고 있어서, 편한 사업이 없고 마음은 의거할 곳이 없다. 이런 상태로 나아가니 바르더라도 위험하다. 석서(鼫鼠)처럼 나아간다면 완수되는 일이 없다.[24]

이것은 진晉괘(䷢) 구4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구4효는 양효로서 제4위에 거하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실현하는 군왕인 육5효를 받들고 있으며, 아래로는 세 음(陰)을 거느리고 있으니 불안한 위치에 있다. 위아래 양방향의 불안요소를 안은 채 석서(鼫鼠)처럼 전진한다면 수행될 일이 없을 것이다. 왕필은 진(晉)괘 가운데 구4효의 효상을 직접적으로 풀이한 것이다. 그런데 왕필의 주석에서 석서(鼫鼠)가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

22) 許愼, 『說文解字』, '鼫鼠'. "五技鼠也. 能飛不能過屋. 能緣不能窮木. 能游不能渡谷. 能穴不能掩身. 能走不能先人."
23) 공영달, 『周易正義』, 晉卦 구4 疏. "鼫鼠有五能而不成伎之蟲也."
24) 왕필, 『周易註』, 晉卦 구4 註. "履非其位, 上承於五, 下據三陰, 履非其位, 又負且乘, 無業可安, 志無所據, 以斯爲進, 正之厄也. 進如鼫鼠, 無所守也."

공영달은 왕필주에 소를 달면서 석서(鼫鼠)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는 구4효사를 풀이하면서는 왕필주에 덧붙여 구4의 불안한 상황을 더 강렬하게 묘사하였다.

> 위(육5)에서는 구4가 받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아래의 음(陰)들은 구4가 의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전진한다면 안전한 사업이 없고 지킬 근거도 없어서 하는 일이 석서와 같이 성공할 수가 없다.[25]

그러나 여기까지는 석서가 과연 무엇인지 여전히 뚜렷하지가 않다. 석서의 뜻은 왕필주에 대한 풀이에서 명확해진다. 공영달은 채옹(蔡邕, 133-192)[26]의 『권학편(勸學篇)』을 인용하여 "석서는 다섯 가지 재능이 있지만 한 가지 재주도 달성하지 못한다(鼫鼠五能, 不成一伎术)"고 하면서, 원래 『권학편』의 주에 실려 있던 『설문해자』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본초경(本草經)』의 '누고(螻蛄, 땅강아지)는 달리 석서(鼫鼠)라고 한다(螻蛄一名鼫鼠)'는 말을 인용하여 『본초경』의 '누고(螻蛄)'가 이 효사의 '석서(鼫鼠)'임을 밝혔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정현은 『시경』의 '큰 쥐여, 큰 쥐여, 나의 기장을 먹지 않는구나(碩鼠碩鼠, 无食我黍)'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큰 쥐(大鼠)로 보았다는 것과, 육기(陸機)는 작서(雀鼠)로 보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다.(陸機以爲雀鼠)

육기(陸機, 261-303)[27]가 말한 작서는 그의 저작인 『시소(詩疏)』에서 대략

---

25) 공영달, 『周易正義』, 晉卦 구4 疏. "上不許其承, 下不許其據, 以斯爲進, 无業可安, 无據可守, 事同鼫鼠, 无所成功也."

26) 蔡邕: 중국 후한 말기의 학자로, 자가 백개(伯喈)이며, 문학과 서예에 뛰어났다. 채옹이 숭산(崇山)에서 터득했다는 영자팔법(永字八法)은 훗날 왕희지에게까지 전해지니 서도(書道)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 후한 영제(靈帝) 때 낭중(郎中)에 기용되어 양사(楊賜) 등과 함께 육경의 문장을 결정했으며, 그것을 돌에 새겨 태학문(太學門) 앞에 세웠는데, 이것이 희평석경(熹平石經)이다. 동탁(董卓)이 정권을 잡았을 때 중랑장(中郎將)까지 올랐지만 동탁의 붕당으로 몰려 옥사했다. 그의 서체를 비백체(飛白體)라 한다. 저서로 시문집 『채중랑집(蔡中郎集)』이 있다.

27) 陸機: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 출신으로 오의 개국공신 가운데 한 명인 육손의 손자이며, 동생 육운(陸雲)과 함께 '이륙(二陸)'으로 일컬어진다. 자는 사형, 오군 화정 사람이다. 오가 멸망한 뒤 10년 동안 숨어 살다가 290년 진(晉)의 수도인 낙양(洛陽)으로 가서 태학의 장(長)으로 임명되었다. 결국 진의 고위 관직에 오르고 귀족이 되었으나, 후에 정치음모에 연루되어 303년에 처형되었다. 육기는 의고적인 서정시를 많이 남겼지만 그보다는 시와 산문이 뒤섞인 복잡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賦)의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문부(文賦)』는 탁월한 관찰력과 정확성으로 문장 구성의 원칙을 정의한 뛰어난 문학비평서이다.

연상할 수 있다. 그는 "지금 하동(河東)에 큰쥐(大鼠)가 있는데, 사람처럼 서서 앞 두 다리를 머리 위에 교차한다. 작서(雀鼠)라고도 한다"[28]고 하였다.[29] 작서(雀鼠)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날다람쥐'를 가리키지만, 육기가 말하는 작서(雀鼠)는 큰 쥐처럼 생긴 일종의 마멋(marmot) 종의 쥣과 동물을 가리키는 것 같다.

왕필에게서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공영달은 이 효사의 석서를 『본초경』의 '누고(螻蛄, 땅강아지)'로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정현의 '큰 쥐'와 육기의 '작서', 그리고 공영달의 '누고'는 어떤 의미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아주(爾雅注)』에서는 "석서(鼫鼠)는 모양과 크기가 쥐(鼠)와 같고, 머리는 토끼(兎) 비슷하고, 꼬리에는 털(毛)이 있으며, 청황색이다"[30]라고 하였다. 『광아』에서는 석서를 "관서(關西)에서는 구서(鼩鼠)[31]라 부른다"[32]고 하였다. 『이아주』에서 말하는 석서는 그 형태로 보아 땅강아지나 날다람쥐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고, 육기가 말한 작서와도 좀 다른 쥣과의 동물로 추정된다. 『이아』나 『광아』는 사전류의 책이고, 『주역』 경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으므로 논외로 친다 해도, 이러한 의미 차이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

28) 陸機, 『詩疏廣要』(흠정사고전서본) 卷下之上, '釋獸・碩鼠'조, "今河東有大鼠, 能人立, 交前兩脚於頭上. 或謂之雀鼠."

29) 참고로,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성호사설(星湖僿說)』 권5, 「만물문(萬物門)」, '석서오능(鼫鼠五能)' 조에서 공영달 소에 인용된 채옹의 『권학문』, 『광아(廣雅)』, 육기의 『시소(詩疏)』 등을 거의 모두 인용하면서 석서를 풀이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육기의 주석 가운데서 공영달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陸機疏云'河東有大鼠, 能人立交前兩脚於頸上, 跳舞善鳴, 食人禾苗, 人逐則走木空中', 亦有五技而不窮者也. 後人不能考驗, 以大鼠爲五技而窮, 殊未覺此獸未曾技窮也.(육기의 소(疏)에서 '하동에 큰 쥐가 있는데, 사람처럼 서서 두 앞다리를 목 위로 교차하여 뛰고 춤추고 소리도 잘 내며, 벼싹을 먹는다. 사람이 쫓으면 나무 구멍 속으로 달아난다'고 하였으니, 또한 다섯 가지 재주가 있어서 가난하게 살지 않는 동물이다. 후세 사람들은 고찰하여 검증할 수 없어서 대서(大鼠)를 다섯 가지 재주를 지니고도 가난하다고 본 것이니, 이 동물이 일찍이 재주가 궁색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곧 이익은 육기의 설명을 빌려 석서가 하동대서(河東大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석서가 다섯 가지 능력을 지니지만 각각 조금씩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재주를 잘 발휘하여 결코 궁색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본 것이다.

30) 郭璞 注, 邢昺 疏, 『爾雅注疏』(흠정사고전서본) 권11, '釋獸・鼫鼠'조, "鼫鼠形大如鼠, 頭似兎, 尾有毛, 青黄色."

31) 구서(鼩鼠): 구서는 새앙쥐(=사향뒤쥐)를 가리키며, 『이아주』나 『광아』에서는 석서를 '날다람쥐'로 보지 않고 쥣과의 동물로 본 것이다.

32) 『廣雅』, "關西呼爲鼩鼠." (郭璞 注, 邢昺 疏, 『爾雅注疏』(흠정사고전서본) 권11, '釋獸・鼠屬'조에서 재인용)

정약용은 일반적인 의미의 큰 쥐(大鼠)로 주석하면서 이외의 해석들을 견강부회라고 비판하였다.

> 구가역에서 바로 다섯 가지 기술을 견강부회하여 주장한 것은〈'골짜기를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을 구덩이(坎)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음〉 잘못이다. 정현은 '석서(鼫鼠)는 곧 큰 쥐(大鼠)이다'라고 하였다.〈석(碩)은 석(鼫)과 통용〉 『자하전』은 석(鼫)을 석(碩)자로 썼다.[33]

정약용은 『자하역전』과 『정현주』를 근거로 했다기보다 자기 주장의 검증 자료로 활용하여 석서를 '큰 쥐'로 풀이하였다.

정약용이 석서를 '큰 쥐'로 풀이하는 데는 자서류나 의서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역리사법을 활용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추이와 효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큰 쥐'라는 해석을 이끌어냈다. 그의 주석을 살펴보자.

> 이는 진(晉)괘가 박(剝)괘로 간 것이다. 괘(䷢)가 소과(小過)괘(䷽)로부터 오는데〈3→6〉, 소과(小過)괘의 때에 간艮(☶) 쥐(鼠)가 아래에 있다가〈쥐의 머리가 3위에 이름〉, 추이하여 진晉괘(䷢)가 되면〈3→6〉 쥐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쥐의 머리가 4위에 이름〉, 또 효변하여 박(剝)괘(䷖)가 되면〈구4효가 움직임〉 간(艮) 쥐의 머리(頭)가 드디어 상위에 이르므로〈박(剝)괘의 위가 간(艮)〉, '나아가는 것이 마치 큰 쥐 같다'고 한다. 박(剝)괘는 큰 간(艮, ☶)이니〈한 양(陽)이 다섯 음(陰)을 거느림〉, 이것이 '큰 쥐(碩鼠)'라는 것이다.〈석(碩)은 크다(大)라는 뜻〉[34]

이에 따르면, 효사의 '석(鼫)'과 '서(鼠)'가 모두 의미를 지닌다. 진(晉)괘(䷢)의 벽괘(辟卦)인 소과(小過)괘(䷽)에서 하괘인 간(艮, ☶)이 쥐 머리를 한 상(象)이고 이것이 본괘(本卦)인 진(晉)괘(䷢)를 거쳐 효변한 지괘(之卦)인 박(剝)괘(䷖)가 되었을 때 윗괘의 간(艮)만이 남아 있어 위에 있는 것이자 큰 것

---

33) 정약용, 『주역사전』 晉卦, 구4 茶山箋. "九家易, 直以五技傳會爲說〈以'不度谷'爲不出坎〉, 謬矣. 鄭玄云 '鼫鼠, 卽大鼠'.〈碩鼫通〉 『子夏傳』, 鼫作碩."

34) 정약용, 『주역사전』 晉卦, 구4 茶山箋. "此晉之剝也. 卦自小過來〈三之上〉, 小過之時, 艮鼠在下〈鼠首至于三〉, 移之爲晉〈三之上〉, 鼠進一步〈鼠首至于四〉, 又變爲剝〈四爻動〉, 則艮鼠之頭, 遂至上位〈剝上艮〉, '晉如鼫鼠'也. 剝爲大艮〈一陽領五陰〉, 是'碩鼠'也.〈碩, 大也〉"

이 된 것이므로 '큰 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따라 진(晉)괘가 표현하고 있는 정치적 양상을 소인이 작은 쥐였다가 큰 쥐처럼 세력을 얻어 전횡할 때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 소인이 갑자기 숭질(崇秩)[35]과 현직(顯職)[36]에 오르는 것이〈간艮이 소인〉 이 상(象)이 아니겠는가? 아아! 그 처음 관직에 오를 때에는 마치 한 걸음 나아간 것에 불과하지만, 급기야 세력을 얻어 임금자리에 가깝게 나아간 것이니, 곧바로 두 단계를 뛰어넘어 드디어 윗괘의 머리에 이르면 뭇 양(陽)들이 다 쫓겨나 기상(氣象)이 쓸쓸하다. 군자는 여기에서 마땅히 소인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37]

중국 송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이(程頤)의 역전을 보면, 정약용의 주석과는 온도차가 있었음 알게 된다. 정이는 석서로 욕심많은 인간, 탐관오리 등을 묘사했다.

> 구(九)가 4효에 있으니 제자리가 아니며, 그 자리가 아닌데도 머물러 있으니 그 자리를 탐하여 차지한 자이다. 높은 자리를 탐하여 머물게 되면 이미 편안한 곳이 아니며, 또한 위와 덕을 같이해서 위에 순종하여 붙는데, 세 음이 모두 자신보다 밑에 있으니, 그 기세는 반드시 위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서 꺼리게 되니, 탐하되 사람을 두려워하는 동물은 쥐(鼫鼠)이다.[38]

정이에게는 '석서'가 별다른 의미 없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른바 '쥐새끼' 같은 소인배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 쥐는 바로 구4 자신이다. 날다람쥐인가 땅강아지인가 마멋 종의 동물인가 하는 것은 정이의 역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자리를 탐하는 소인배를 의미하는 '쥐'인 것이다. 주희의 본의(本義)도 정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원대의 역학자인 장청자(張淸子)[39]도 "『시』에서는 석서로서 탐욕을 풍자하였고,

---

35) 숭질(崇秩): 품계가 높은 벼슬.
36) 현직(顯職): 요직(要職). 높고 중요한 벼슬.
37) 정약용, 『주역사전』 晉卦, 구4 茶山箋. "小人之驟躋崇顯〈艮小人〉, 非此象乎? 噫! 其始升之時, 猶不過進一步而止矣, 及其得勢而進以近君位, 則直超二級, 遂至上頭, 而羣陽盡剝, 氣象索然. 君子於此, 宜知小人之戒."
38) 程頤, 『이천역전』, 晉卦 구4 효 傳. "以九居四, 非其位也, 非其位而居之, 貪據其位者也. 貪處高位, 旣非所安, 而又與上, 同德順麗於上, 三陰皆在己下, 勢必上進. 故其心畏忌之, 貪而畏人者, 鼫鼠也."

이곳의 석서는 승진에 욕심 부리는 자를 형상하였다"[40]고 하였다. 동시대의 오징(吳澄)도 "쥐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움직인다. 4효는 천자의 빛 가까이 있고 굳셈으로써 부드러운 자리에 있어 해가 하늘에 떠 있는 낮에는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한다"[41]고 하였다. 다 같이 탐욕스러운 쥐를 상징한 것이다.

조선 초기의 권근(權近)은 이전의 역학자들보다 문자학적으로 더 세밀하게 접근하였다. 그는 문자 분석과 효상 분석을 통해 석서를 '산쥐'로 해석하였다.

> 이 설명에서 '쥐'의 상을 말한 것은 좋다. 그러나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한다'면 무슨 위태로움이 있겠는가? 정자주자가 '탐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한 설명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석(鼫)'자는 '서(鼠)'를 뜻으로 '석(石)'을 소리로 하니, 돌 사이 구멍에 사는 쥐인 듯하다. 돌 사이에 있는 쥐는 작고 빛나는 것이다. 구사가 리괘의 아래에 있어 빛나는 작은 것이므로 여기에서 상을 취하였다. 산쥐는 암석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니, 높은 지위에 있어 탐욕스럽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이 있다. 창고에 사는 쥐라면 엎드려 어두운 곳에 숨어 있어 높은 지위에 있는 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징은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리괘에 있으면서 빛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산쥐여야 할 것 같다.[42]

권근은 '석'자를 크다는 의미로 보지 않았고, 부수 분석을 통해 이른바 집쥐가 아니라 산속의 돌 사이 구멍에 사는 산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역학사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독특한 해석이면서 대단히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조선에서도 석서를 '땅강아지'로 본 유일한 학자가 있었다. 김장생(金長生)은

---

39) 장청자張淸子: 중국 원대의 역학자. 자가 希獻, 호가 中溪이다. 저서로 주희의 『주역본의』를 종지로 삼아 지은 『周易本義附錄集註』가 있다.

40) 張淸子, 『周易本義附錄集註』. "詩以碩鼠刺貪, 此之碩鼠象其貪於進也." (『주역전의대전』에서 인용)

41) 吳澄, 『易纂言』(흠정사고전서본). 晉卦, 구4 주. "鼠晝伏夜動. 四近天子之光, 以剛居柔, 値大明當空之晝, 畏而不敢進."

42) 權近, 『周易淺見錄』. "此說其言鼫鼠之象, 善矣. 然畏而不敢進, 則有何厲乎? 程朱貪而畏人之說, 無以易也. 但恐鼫字從鼠從石, 鼠之穴于石中者也. 石中之鼠, 小而有文者也. 九四居离之下, 有文之小, 故取象焉. 山鼠好上巖石, 見人而畏, 有據高位, 貪而畏人之象. 若夫府庫之鼠, 潛伏隱暗, 未見有據高位之象也. 故吳氏以畏而不敢進言之. 然居离而有文, 處高而畏人, 似當爲山鼠也." (한국주역대전, 한국대전 참조)

"석(鼫)은 땅강아지이다. 일설에 모양과 크기가 쥐 같고 일명 '작서(雀鼠, 날다람쥐)'라고 하였다. 『시』에서는 '석서(碩鼠, 큰 쥐)'라고 하였다"[43]고 했다. 이 단 몇 자의 주석을 가지고 김장생의 생각을 읽어내기는 어렵겠으나, 어쨌든 그는 석서를 땅강아지로 해석하였고, 부수적으로 날다람쥐, 큰 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음을 소개한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진(晉)괘 구4는 최고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서 강한 신체를 지녔지만 있을 자리가 아닌 어두운 곳에 거하면서 여러 소인배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군주로부터도 경계받고 소인배들로부터도 의심받는 불안한 처지에 있는 형상이다. 이러면서 높은 자리를 굳이 지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니 쥐와 같은 것이 상징어가 된 것이다. 따라서 석서는 탐욕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쥐, 큰 쥐, 산쥐, 들쥐, 또는 집쥐 등 어느 것이든 통할 수 있다. 그런데 날다람쥐나 땅강아지는 탐욕스런 동물의 상징으로 보기에는 좀 어색한 면이 있다.[44]

4. 맺음말

본 논문은 이러한 물상의 역사(易詞) 속에서의 의미를 동물과 식물 각각의 사례를 가지고 통시적으로 그 변화 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역사(易詞)의 상징성을 보편과 특수라는 해석 관점에 따라 조망하면서, 상징성의 시공간적 함의와 역사(易詞) 해석을 둘러싼 상징성의 차별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역사(易詞)는 기본적으로 기호와 상징의 체계로 구성되었지만, 한편으로 역

43) 金長生, 『周易』. "鼫, 螻蛄, 一曰, 形大如鼠, 一名雀鼠, 詩作碩鼠." (한국주역대전, 한국대전 참조)

44) 참고로, '석서(鼫鼠)'에 대한 최근 번역서 가운데 한국어 번역을 몇 가지 소개한다. 김석진은 『설문해자』의 석서의 다섯 가지 재능을 인용하면서 "다섯 가지 기술이 있으나 하나도 제대로 능한 것이 없어서 의심이 많게 된다"고 뜻풀이하고, 효사에서는 '다람쥐'라고 번역하였다.(김석진, 『대산주역강해』 하, 대유학당, 1994(초판 1993), 51쪽) 그러나 석서를 '다람쥐'로 풀이한다면 『설문해자』를 인용한 것이 아무 연관성이 없게 되고 무의미한 주석이 된다. 또한 '현륙(莧陸)'에 대해서는 "자리공과에 속하는 다년초로서 부드럽고 습기가 많은 순음(純陰)으로 된 풀"이라고 뜻풀이하고, 효사에서는 그대로 '현륙'이라 하였다.(김석진, 『대산주역강해』 하, 대유학당, 1994(초판 1993), 123쪽) 현륙이 한국어로 일치하는 단어가 없어서 '현륙'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후학에게는 매우 아쉬운 점이다. 김인환은 '석서오능' 고사를 인용해 놓고도 '다람쥐'라고 번역하였다.(김인환, 『주역』, 고려대출판부, 2006, 285쪽) 팥에 대해 설명하고는 콩이라 하는 격이다.

사(易詞)는 은말주초(殷末周初)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른 역사적 텍스트이다. 십익(十翼) 이래로 역대 주석들은 의리적이든 상수적이든 당대의 역사와 문화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주석가에 따라 역사(易詞)의 내포적 의미가 차별화되었다. 해석 관점의 차이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현격해지며, 주석자의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주석 연구자의 해석 관점에도 그가 속한 특수한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역사(易詞)의 의미 변천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홑괘(팔괘)의 상징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중첩되어 만들어지는 겹괘(64괘)의 상징들도 해석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사조별 의미의 변천이 있다. 384개 역사 전체에 등장하는 물상들은 각 주석자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전쟁의 상이 될 수도 있고, 평화의 상이 될 수도 있다. 대인의 장쾌한 상이 될 수도 있고, 소인이 갈구하는 희망의 상이 될 수도 있다. 역사(易詞)를 독해할 때 사전의 고정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날다람쥐의 생태적 특징을 잔뜩 설명해 놓고 번역어는 생쥐라고 하는 경우처럼 전혀 엉뚱한 언어가 되는 것이다.

동일한 역사(易詞)의 한 물상을 동물로도 식물로도 또는 전쟁과 평화로도 해석하는 각각의 해석 관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역학이 오랜 기간 동아시아에서 누려왔던 다양한 인문학적 콘텐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원전류

丁若鏞,『定本 與猶堂全書』, 茶山學術文化財團, 2012.
孔穎達,『周易注疏』
來知德,『周易集註』
蘇 軾,『東坡易傳』
吳 澄,『易纂言』
王引之,『經義述聞』(王雲五 주편, 商務印書館)
王 弼,『周易注』
俞 琰,『周易集說』
李道平,『周易集解纂疏』
李時珍,『本草綱目』
李鼎祚,『周易集解』
程 頤,『伊川易傳』
丁易東,『易象義』
鄭 玄,『周易鄭康成注』
朱 震,『漢上易傳』
朱 熹,『周易本義』
蔡 淸,『易經蒙引』
許 愼,『說文解字』

2. 원서류

廖名春 外,『周易哲學史』(심경호 역,『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5), 長沙: 湖南出版社, 1991.
徐遠和,『洛學源流』(손흥철 역,『이정의 신유학』, 고양: 동과서, 2011).
林忠軍,『象數易學發展史』, 齊南: 齊魯書社, 1998.

3. 연구서

방 인,『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서울: 예문서원, 2014.
방 인・장정욱 역주,『주역사전』, 서울: 소명출판, 2007.
엄연석,『조선전기역철학사』, 서울: 학자원, 2013.
정병석,『점에서 철학으로』, 고양: 동과서, 2014.
Georges Jean,『기호의 언어—정교한 상징의 세계』(김형진 역), 서울: 시공사, 1997, 2002.
黃晞起,『丁若鏞의 周易哲學』, 고양: 동과서, 2014.

4. 논문류

김민정, 강연석,「『本草綱目』을 통해 본『周易』의 物象에 대한 고찰」,『한국의사학회지』31-1, 한국의사학회, 2018.
김영섭,「來知德의 易學哲學 硏究」,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16.

방 인, 「경방의 벽괘설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 『철학사상』 54,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14
엄연석, 「《周易》의 상징체계와 程頤《易傳》의 의리역학」, 『泰東古典硏究』 21, 2005.
李範鶴, 「吳澄의 易學과 邵雍」, 『한국학논총』 31, 2009.
임재규, 「정약용 효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종교와 문화』 24, 2013.
정병석, 「『주역』 상(象)의 실천적 성격」, 『哲學論叢』 70, 2012.
黃昞起, 「원대 이후 『주역』 주석사에 나타난 중부괘 돈어(豚魚)의 의미 연구」, 『溫知論叢』 37, 2013.
_____, 「中國 宋代까지의 『周易』 註釋史에 나타난 中孚卦 豚魚의 意味 硏究」, 『유교사상문화연구』 53, 2013.
_____, 「『주역』의 상징성과 그 역사적 기원」, 『溫知論叢』 52, 온지학회, 2017.

【Abstract】

Biological Humanities sought in *I Ching* *

Hwang, Byong Kee**

This article is one of the continuous projects of the "The Study of Culture and History that involve changes of inner meaning of Symbols in the *I Ching*: Focusing on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Symbolism in the *I Ching* of Jeong Yak-yong" project, and aims to reinterpret Yi-ology as a wide-ranging humanities by analyzing the cultural relativity of symbolism through the case of annotations on biological objects in the *I Ching* scriptures.

Basically, the Single-Gua(8 Trigrams) instructs each object classified according to eight categories, but at the stage of the double-Gua(64 Hexagrams), a new image is created by complicated network formation, such as the newly formed upper and lower relationship, the response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ship of change according to each position. The complex statues that appear in the double-Gua completely preserve each of the eight-Gua statues, but they are also changed to completely different statues. In addition, it is also recognized as a completely different object depending on the commentator's interpretation point of view.

This paper reviewed the change pattern with the case of each animal and plant for the symbolism of this *I Ching* scriptures. While looking at the symbolism of *I Ching* scripture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perspective of universality and speciality, the spatiotemporal implications of symbolism and the discriminatory changes in symbolism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I Ching* scriptures were examined.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perspective varies according to the times and space, and also depends on the status and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commentator. From the interpreter's point of view, the special history and culture to which he belongs are always melted. Therefore, a cultural and historical approach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meaning of *I Ching* scriptures is possible. Yi-ology change from Han period to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5A02025523).

** Collaboration Professor, Dept. of Oriental Studies, Seokyeong Univ.

Wei-Jin period, and it takes on different patterns in the Sui-Tang period, Song-Ming period, Yuan period and Qing period. In particular, in Yuan period and Qing period, the symbolism of *I Ching* scriptures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times.

Not only the symbols of the 8 Trigrams but also the symbols of the 64 Hexagrams created by overlapping them hav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perspectives and changes in the meaning of each trend. The statues that appear throughout 384 statements contain the unique zeitgeist of each interpreter. Depending on the interpreter's point of view, it can be an image of war or a statue of peace. It can be an image of noble person's future or a statue of hope that lowly person craves. When reading *I Ching* scriptures, you should not be bound by the fixed meaning of the dictionary, but should be understood according to the entire context. Otherwise, it becomes a completely wrong language, such as explaining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flying squirrel and translating it as a mous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each interpretation perspective that interprets an object of the same *I Ching* scriptures as an animal, plant, or war and peace, various humanistic contents that Yi-ology has enjoyed for a long time in East Asia can be activated.

Keywords: Biological Humanities, *I Ching*, Symbolism, Yi-ology(易學), interpretation perspective, 8 Trigrams, 64 Hexagrams, Jeong Yak-yong, zeitgeist.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0.